

다카하시 가문 주택

다카하시 가문 주택은 류겐지 강도로 향하는 길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은을 채굴하는 지역의 공동체 중에서도 이 다카하시 가문이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장소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. 1839년 당시 다카하시 가문의 가장이었던 도미사부로(은광부들과 에도(현재의 도쿄) 막부의 대표인 현지 다이칸쇼(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) 사이를 연결하는 연락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. 이 연락관은 채굴 사업자 채용, 은광 작업에 필요한 허가증 발행, 산출된 은을 에도로 수송하기 위해 대리자로 임명된 막부의 대표자와 다양한 채굴 사업체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.

은광 관리에 관여하며 커다란 부를 축적한 다카하시 가문은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호화로운 주택을 지었습니다. 1860년경에 완공된 이 주택은 도로에 면한 안채와 정원의 다실, 그리고 뒤쪽의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현재 이 다카하시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, 이제 막 근대로 진입하던 시기에 살았던 이와미 은광의 광부와 그 가족들의 부유한 삶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.